

# 해양·환경 등 21개 기관 타깃...시·도 공동 TF 꾸려

## 공공기관 2차 이전...광주시·전남도 유치 전략과 목표

당정이 검토중인 추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모두 122개다. 이 가운데 일부 기관을 제외한 116개소가 추가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서울에 95개, 인천에 3개, 경기도에 18개가 각각 소재하고 있다.

◇광주·전남, 21개 기관 이전 목표=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우정사업 등 1차 혁신도시 이전기관 유치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등 15개 기관이 포함된다.

빛가람(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있어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에너지·문화·정보통신 등

## 나주혁신도시 이전 적극 추진

## 공공기관 분·분원 유치도 총력

또한, 해양과 환경 등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들과 관련된 기관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두 21개 기관이 광주·전남의 추가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TF를 꾸리고, 광주전남연구원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공공기관 분·분원 유치에도 사활=전남도는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 이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유형	주요 기관
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림해양	한식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관리공단
문화관광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한체육회
국토건설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경제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보건복지여성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환경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협회
기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	162개

(출처: 공공기관리포트)

외에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을 비롯한 해양치유 국립 스포츠재활원, 국립 섬발전연구 진흥원, 국립 순천민속박물관, 체육인 교육센터 등 20개 공공기관의 분원 및 분원 이전을 추진중이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 어촌어항협회를 제외한 18개의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에서 새로 설립할 계획이거나 검토중인 분원

이나 분소 등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분·분원 유치 대상기관은 조선과 해양 분야 공공기관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농수산과 문화체육관광분야가 각각 4곳, 건강보건 분야가 2곳 등이다. 이 가운데 10개의 공공기관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경합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관여해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도는 이미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예산 설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이뤄져야=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호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영남권과 충청권에 비하면 공공기관 이전 숫자는 턱없이 적은 수치다.

지방균형에만 기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지역 균형을 간과한 채 1차 공공기관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서는 낙후 지역을 고려한 이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70년 이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남은 42%의 인구가 줄었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인 15.7%다. 전국 광역 평균 34.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사·도의 균형 분할이 아닌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제정기로 한 만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첫 야간 개최 문대통령 "평화 위해 튼튼한 국방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봉환하는 64위 국군 전사자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례에 이어 국군 전사자 유해 향해 거수경례로 예를 표한 다음, 헌화·분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4위의 '호국용사의 영(靈)'이라고 적힌 국군 전사자 유해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한 다음 묵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해봉송버스가 이동하는 순간부터 공황을 빼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로 다시 한 번 예를 표했다.

한편,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6시 2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국군의 날이 평일이어서 국민 다수가 기념식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오후 시간대에 처음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밝혔다.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시가지 퍼레이드가 펼쳐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옮기다 보니 퍼레이드하기에는 늦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현역·예비역 장병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청와대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국군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군 70년의 역사는 우리 국토와 주권을 지켜온 역사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온 역사"라며 "조국의 평화를 위해 맘 흘려온 국군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은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다.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며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군의 날 사이 공연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수 싸이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평화·정의, 10·4 기념식 평양행 한국·바른미래 불참

이달 4~6일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북단이 꾸려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민주당에서 11명, 민주평화당 4명, 정의당 3명이 방북하

며 기자 2명이 동행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대표가 방북단을 이끌며,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연 정책위의장,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평양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황주홍·이용주 의원이 방북한다. 평화당 몫인 4명 가운데 한자리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에게 돌아갔다. 평화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몫 가운데 하나는 손 의원에게 양보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당 분당 사태에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어느 쪽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을 선택한 바 있다.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과 신장식 사무총장, 한창민 부대표가 10·4선언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행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후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상해**

299,000원~

상해/항주/주각 4일, 5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야경 #동양의 베니스 #주각라 뱃놀이

**상해/장가계**

1,2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

**대만/동남아**

**대만**

614,200원~

대만/지우펀/야류 3일, 4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먹거리, 불거리가득

**방콕**

459,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토, 일요일 4박 6일

#코끼리트레킹 #발마사지 #다이나믹 여행지

**일본**

**다낭**

89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포강투어 #후에전통가

**기타큐슈**

4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

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목, 일요일 3박 4일

#지족은전 #캐널시티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